

아동의 공격행동에 따른 결과예상에 대한 연구*1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Anticipation of the Consequences of Aggression

김 명 속
Kim, Myoung 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ex differences in outcome expectation for aggression, and to study the effects of sex of target child and degree of provocation on the consequences that a child anticipates for aggression.

The subjects were 30 boys and 30 girls in the 6th grade of a public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Seoul. The children were tested individually by an adult who read the items to the child. Perry, Perry, and Weiss's Outcome Expectation Questionnaire, The modified consisting of 48 items was us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by analyses of variance with repeated measures and t-test.

Boys expected less guilt and negative self-reactions for aggression than girls. When provoked, children expected more tangible reward and less parental disapproval than when not provoked. When aggressing toward boys, children expected more tangible rewards, less parental disapproval, and less peer disapproval than when aggressing toward girl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의 공격적 습관은 성인기의 공격행동을 예상할 수 있는 안정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Eron, 1987), 아동의 공격성은 지속적인 특성을

지닌다(Olweus, 1977).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공격성이 감소하는데 반해, 공격적인 아동은 공격성의 증가 추세를 보이며 (Patterson & Mischel, 1976), 초기의 공격적 행동형태는 그후의 반사회적 행동상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e. g., Farrington, 1978). 따라

* 1. 본 논문은 1989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 논문임.

서 청소년의 폭력 및 범죄행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활발하고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인간의 내적 요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공격성을 설명하려는 인지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Bandura, 1986), 행동의 결과예상(outcome expectation)은 행동에 따른 보상과 벌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관찰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다양한 학습경험의 통합과 아동의 정신적 표상을 반영한다고 한다. 또한 Bandura에 의하면 공격적 행동을 유지하는데는 그들 자신이 원하는 실제적 보상, 성인들의 승인, 또래의 승인, 희생자의 고통, 자기 보상등의 결과예상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아동들의 공격성 결과예상에 대한 남녀 성차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e. g., Perry, Perry & Rasmussen, 1986; Guerra, 1988). 그 결과 Perry와 그 동료들(1986)은 남자 아동들이 여자 아동들보다 공격성에 대해 실제적 보상을 더 많이 예상했으나, 희생자의 고통, 또래의 불승인, 그리고 부정적 자기평가는 적게 예상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Slaby & Guerra(1988)는 청년기 남자들이 청년기 여자들보다 공격성이 자아 존중감을 증가 시켜주고 희생자가 고통받지 않을거라고 예상함을 알아내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공격성의 결과예상에 대한 성차를 발견했지만, 대상의 성(target sex)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혼동될 가능성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Perry, Perry & Weiss, 1989). 상황적 요인인 대상의 성 그리고 분노의 여부에 따른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들은 여자 대상보다는 남자 대상에게

더 많이 공격하는 경향으로 대상의 성차이를 나타내며(Maccoby & Jacklin, 1974), 아동들은 분노상황에서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odge, 1980). 따라서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 벌과 같은 결과예상에 있어 아동의 신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과 같은 개인적인 변인뿐만 아니라 대상의 성, 분노의 여부와 같은 상황적 요인들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성에 따른 공격성 결과예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상의 성, 분노의 여부가 아동이 예상하는 공격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의 성에 따라 공격행동에 대한 결과예상에 차이가 있는가?
- 2) 대상의 성에 따라 공격행동에 대한 결과예상에 차이가 있는가?
- 3) 분노의 여부에 따라 공격행동에 대한 결과예상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공격성 이론

공격성 발달에 관한 이론으로는 크게 본능이론, 욕구좌절이론, 사회학습이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인간의 내적 요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공격성을 설명하려는 인지사회 학습이론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Bandura(1986)에 의하면, 공격성은 다른사람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공격적인 행동 결과를 기억속에 부호화하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행하기 위한 규칙을 세움으로써 습득된다고 한다. 한편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좌절과 유발사건에 대한 반응이 인지적으로 매개되거나, 유발사건에 대한 개인의인지적 평가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이성이론가들 또한 자극 그 자체보다는 지각되는 자극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가 단서의 성격을 결정짓고 그에 준하여 적절한 반응이 뒤따르게 된다고 하였다(Nasby, Hayden & DePaulo, 1980). 즉 혐오자극인 부정적 결과 자체가 공격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기 보다는 그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예상등의 인지적 요인과 인지과정이 개입되므로써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동이 예상하는 공격행동 결과는 개인적 경험 및 개인차를 포함한 사회화 경험을 통하여 습득되어진 공격적 행동과 아동의 인지적 매개과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공격의 결과에상에 관한 연구는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공격성 결과예상의 범주

Bandura(1973, 1979)에 의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였다. 즉 그들이 원하는 실제적 보상의 획득, 다른 사람들로 부터의 승인, 자아존중감의 증진, 혐오스런 대우의 소멸, 그리고 희생자의 고통을 통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따

라서 아동이 공격성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 보상, 부정적 자기평가, 희생자의 고통, 부모의 불승인, 그리고 또래 불승인에 대한 결과 예상 범주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들의 공격성의 대부분은 장난감과 같은 것을 얻거나 되찾고 싶은 욕망이 공격성의 동기가 된다고 한다(Hartup, 1974). 그리고 공격적인 행동들은 원하는 실제적인 보상을 얻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아동들이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게 된다(Bandura, 1973).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보상의 결과는 아동들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데 중요 요인이 된다.

Patterson, Ludwig & Sonoda(1961)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칭찬을 받은 아동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 칭찬 받지 못한 아동들 보다 공격적인 행동이 더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Berkowitz(1962)도 개인의 공격적인 경향은 공격에 대한 벌이나 불승인을 예상하는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 부터의 승인의 여부는 아동들의 공격성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와 또래 집단을 생각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불승인 또한 공격적 반응에 영향을 끼친다. 인간은 자기 통제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정한 표준을 설정하고 자기보상적 또는 자기 처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에 반응한다(Bandura, 1977).

공격성에 뒤따르는 결과예상 중에서 희생자의 고통스런 표현은 감정이입적 억압과 죄의식을 일으키는 단서가 되어 공격행동을 유발시키거나 그 만두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격성을 유발시키고, 유지시키고, 그리고 수정 시킬수 있는

요인으로는 실제적 보상, 부정적 자기평가, 희생자의 고통, 부모의 불승인, 또래의 불승인에 대한 아동들의 예상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3. 공격성의 결과예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격성을 설명하는 데는 여러 상황적 조건들과 관련지어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예상하는 공격성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성, 대상의 성, 그리고 분노의 여부의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몇몇 연구들에서 공격성의 결과예상에서 아동의 성차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격성의 결과에 대한 예상에 있어서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의 성차를 주장한 Perry와 그 동료들(1986)의 연구 결과는 남자 아동들이 여자 아동들보다 공격성에 대해 긍정적인 보상을 더 많이 예상하였다. 또한 Eagly & Steffen(1986), Slaby & Guerra(1988)의 연구에서도 공격성 결과예상에서 아동의 성차를 보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상의 성과 같은 다른 상황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5-8세 아동들을 주의해서 관찰한 결과 공격대상이 남자아동일 경우는 남자아동이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공격대상이 여자 아동일 경우는 공격적 행동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Barrett, 1979). 따라서 아동의 공격행동에 따른 결과예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 뿐만 아니라 대상의 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아동들은 그들 자신이 분노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분노했을 경우가 더 공격적이라고 하였다(Dodge, 1980). 또한 분노성 공격이 비분노성 공격 보다 성차가 더 크다고 한다(e. g., Frodi, Maccaulay & Thome, 1977). 그러므로 분노의 여부 또한 공격행동에 따른 결과 예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학교 6학년 아동으로 남녀 각각 30명씩 총 60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을 국민학교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시기에 공격성 발달의 안정성이 이루어지며(Eron, 1987), 공격성에 대한 성차가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Perry, et al., 1989).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Perry, Perry & Weiss(1989)가 제작한 결과예상 질문지(Outcome Expectations Questionnaire)를 본 연구자가 번안 수정하였다. 이 질문지는 개인면접으로 총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0개 문항은 아동이 예상하는 공격성의 결과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아동들이 공격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실제적 보상, 자기비난이나 죄의식을 갖는 부정적 자기평가, 희생자가 아파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예상하는 희생자의 고통, 부모가 화를 내거나 처벌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 부모의 불승인, 또래들이 싫어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또래 불승인의 5가지 하위척도를 포함한다.

각 척도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8개 문항은 보충문항이다.

각 문항은 아동의 공격성 결과예상에 대한 확신의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범주마다 그 범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때 1점, 그 범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덜 분명할때 2점, 그 범주의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덜 분명할때 3점, 그 범주의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할때 4점으로 점수를 주었다. 각 범주에 의해 얻어진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의 결과예상에 대한 확신이 높은 것이다. 각 하위영역별 점수 범위는 4-32점이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6학년 1개 학급에서 임의로 남녀 6명씩 총 12명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들이 문항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개인면접의 소요시간은 20분 정도였다. 예비조사에서 실시한 대상은 본 조사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아동학을 전공하는 4명의 보조 연구원에 의해 1개 국민학교에서 지정된 교실에서 개인면접으로 실시되었다. 면접은 연구자와 대상 아동이 책상을 앞에 놓은 상태에서 연구자가 각 문항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4개의 응답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아동의 성, 대상의 성, 분노의 여부에 따라 아동이 예상하는 공격성 결과에 대한 차를 알아보

기 위하여, 2(아동의성) x 2(분노의 여부) x 2(대상의 성) 요인 설계에 의한 반복측정 변량분석과 t 검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에 따라 공격성 결과예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상의 성, 분노의 여부가 아동이 예상하는 공격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실제적 보상, 부정적 자기평가, 희생자의 고통, 부모의 불승인, 그리고 또래의 불승인의 범주에서 나타나는 결과예상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1. 실제적 보상에 대한 결과예상의 차

실체적인 보상의 결과에 대한 예상에 있어서 아동의 성, 대상의 성, 그리고 분노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성에 따른 결과예상의 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분노의 여부에 따른 주효과는 1% 수준에서 그리고 대상의 성에 따른 주효과는 5%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화가나지 않았을 경우보다 화가났을 경우에 공격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얻고자 하는 실체적 보상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또한 아동들은 여자 아동들보다 남자 아동을 공격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보상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표 1〉 아동의 성, 분노의 여부, 대상의 성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N=60)

분노의 여부 대상의 성 아동의 성		분노성 공격		비분노성 공격	
		남자대상	여자대상	남자대상	여자대상
법 주 실 체 적 보 상	남	3.12(0.81)	2.62(0.85)	1.93(0.70)	2.17(0.76)
	여	2.95(0.76)	2.20(0.87)	1.98(0.59)	2.17(0.71)
부 정 적 자 기 평 가	남	2.08(0.78)	2.50(0.83)	1.30(0.41)	3.43(0.55)
	여	1.80(0.69)	2.98(0.74)	1.43(0.69)	3.75(0.52)
희 생 자 의 고 통	남	2.98(0.75)	3.47(0.45)	3.05(0.58)	3.60(0.46)
	여	3.07(0.75)	3.55(0.46)	3.00(0.74)	3.63(0.45)
부 모 의 불 승 인	남				
	아 버 지	1.73(0.69)	3.27(0.78)	3.57(0.73)	1.63(0.72)
	어 머 니	2.97(0.85)	1.40(0.56)	1.43(0.82)	3.47(0.73)
	여				
또 래 의 불 승 인	남				
	남 자 또 래	2.50(0.82)	2.63(0.89)	1.86(1.09)	2.45(1.03)
	여 자 또 래	2.47(0.97)	1.70(0.88)	1.93(0.86)	3.33(0.92)
	여				
	남 자 또 래	2.83(0.87)	2.33(0.80)	1.43(0.57)	3.00(0.87)
	여 자 또 래	2.60(1.00)	1.63(0.81)	1.97(0.89)	3.33(1.06)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는분노의 여부와 대상의 성에 대해서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외의 각 변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t=8.22, P<.0001, df=118$) 공격의 대상이 남아일 경우에는 분노하지

않은 상황에서보다 분노한 상황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더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여아일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다.

2. 부정적 자기평가에 대한 결과예상의 차

부정적 자기평가의 예상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

〈표 2〉 실제적인 보상의 결과예상에 대한 아동의 성, 분노의 여부, 대상의 성별 변량분석표

Sources	ss	df	Ms	F
<u>집 단 간</u>				
아동의 성(A)	4.27	1	4.27	0.98
오 차(1)	251.97	58	4.34	
<u>집 단 내</u>				
분 노(B)	104.02	1	104.02	63.63**
대상의 성(C)	10.47	1	10.42	6.37*
A × B	6.02	1	6.02	3.68
A × C	1.35	1	1.35	0.83
B × C	41.67	1	41.67	25.49**
A × B × C	0.60	1	0.60	0.37
오 차(2)	284.43	174	1.63	

*P<.05, **P<.01.

분석한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성에 따른 주효과 그리고 대상의 성에 따른 주효과가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분노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가 공격적 행동에 대한 결과로 죄의식을 더 많이 느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남·여아 모두 남아보다 여아를 공격했을 때 더 많이 죄의식을 느낄 것으로 예상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는 아동의 성과 대상의 성에 대해서 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분노의 여부와 대상의 성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외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여아 모두 남아보다 여아를 공격했을 때 죄의식 및 자기비난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t=9.91$, P

$<.0001$, $df=58$, $t=13.59$, $P<.0001$, $df=58$. 또한 분노한 상황과 분노하지 않은 상황모두에서 남아를 공격했을 때보다 여아를 공격했을 때 부정적 자기 평가를 더 많이 예상하였다, $t=5.62$, $P<.0001$, $df=118$.

3. 희생자의 고통에 대한 결과예상의 차

〈표 4〉에 의하면 아동의 성 그리고 분노의 여부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상의 성에 대한 주효과는 1% 수준에서 유의했다. 이는 남·여아 모두 공격의 대상이 남아일 경우보다 여아일 경우에 공격행동에 따른 희생자의 고통을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부정적 자기평가의 예상에 대한 아동의 성, 분노의 여부, 대상의 성별 변량 분석표

Sources	ss	df	Ms	F
<u>집 단 간</u>				
아동의 성(A)	6.34	1	6.34	7.70**
오 차(1)	47.70	58	0.82	
<u>집 단 내</u>				
분 노(B)	4.54	1	4.54	2.18
대상의 성(C)	549.04	1	549.04	263.71**
A × B	0.94	1	0.94	0.45
A × C	13.54	1	13.54	6.50*
B × C	121.84	1	121.84	58.52**
A × B × C	5.10	1	5.10	2.45
오 차(2)	362.26	174	2.08	

*P<.05, **P<.01.

〈표 4〉 희생자 고통의 예상에 대한 아동의 성, 분노의 여부, 대상의 성별 변량 분석표

Sources	ss	df	Ms	F
<u>집 단 간</u>				
아동의 성(A)	0.34	1	0.34	0.19
오 차(1)	101.58	58	1.75	
<u>집 단 내</u>				
분 노(B)	0.70	1	0.70	0.54
대상의 성(C)	69.33	1	69.33	52.73**
A × B	0.50	1	0.50	0.38
A × C	0.10	1	0.10	0.08
B × C	0.70	1	0.70	0.54
A × B × C	0.10	1	0.10	0.08
오 차(2)	228.79	174	1.31	

**P<.01.

4. 부모의 불승인에 대한 결과예상의 차

부모의 불승인에 대한 결과예상에서는 <표 5>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아동의 성, 대상의 성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노의 여부, 그리고 부모의 성에 따른 주효과는 각각 5%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아동들은 분노한 상황에서 보다 분노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격이 부모가 승인하지 않을 거라는 결과예상을

더 많이 예상하였다. 그리고 아동들은 공격에 대한 결과예상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승인을 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상호작용효과로는 대상의 성과 부모의 성의 상호작용이 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분노의 여부, 대상의 성, 부모의 성의 상호작용 또한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2원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동들은 공격의 대상과 동성인 부

<표 5> 부모의 불승인의 예상에 대한 아동의 성, 분노의 여부, 대상의 성별 변량 분석표

Sources	ss	df	Ms	F
<u>집 단 간</u>				
아동의 성(A)	0.17	1	0.17	0.36
오 차(1)	27.10	58	0.48	
<u>집 단 내</u>				
분 노(B)	5.00	1	5.00	9.31*
대상의 성(C)	0.25	1	0.25	0.47
부모의 성(D)	3.85	1	3.85	7.17*
A × B	0.05	1	0.05	0.10
A × C	0.10	1	0.10	0.19
A × D	0.35	1	0.35	0.66
B × C	0.19	1	0.19	0.31
B × D	1.75	1	1.75	3.26
C × D	9.35	1	9.35	17.40**
A × B × C	0.60	1	0.60	1.12
A × B × D	0.17	1	0.17	0.31
A × C × D	0.47	1	0.47	0.87
B × C × D	431.30	1	431.30	802.53**
A × B × C × D	2.00	1	2.00	3.73
오 차(2)	218.19	406	0.54	

*P<.05.

**P<.01.

모가 공격행동을 더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t=2.77, P<.01, df=18, t=3.81, P<.001, df=104$. 또한 3원상호작용효과를 t 검증한 결과 각각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동들이 분노상황에서는 부모와 이성인 아동을 공격했을때 부모가 더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비분노 상황에서는 부모와 동성인 아동을 공격했을때 부모가 더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5. 또래의 불승인에 대한 결과예상의 차

〈표 6〉에 의하면 아동의 성, 분노의 여부, 그리고 또래집단의 성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상의 성에 따른 주효과는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남·여아 모두 남아보다 여아를 공격했을 경우에 또래집단이 더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로는 분노의 여부와 대상의 성,

〈표 6〉 또래 불승인의 예상에 대한 아동의 성, 분노의 여부, 대상의 성별 변량 분석표

Sources	ss	df	Ms	F
<u>집 단 간</u>				
아동의 성(A)	0.10	1	0.10	0.13
오 차(1)	45.77	58	0.79	
<u>집 단 내</u>				
분 노(B)	0.75	1	0.75	0.91
대상의 성(C)	14.79	1	14.79	17.97**
또래집단의 성(D)	0.02	1	0.02	0.02**
A × B	0.002	1	0.002	0.00
A × C	0.04	1	0.04	0.05
A × D	0.002	1	0.002	0.00
B × C	92.00	1	92.00	111.79**
B × D	25.67	1	25.67	31.19**
C × D	1.03	1	1.03	1.25
A × B × C	6.06	1	6.06	7.37**
A × B × D	0.02	1	0.02	0.02
A × C × D	0.66	1	0.66	0.80
B × C × D	7.94	1	7.94	9.65**
A × B × C × D	3.78	1	3.78	4.59
오 차(2)	334.12	406	0.823	

** $P<.01$.

분노의 여부와 또래의 성, 아동의 성과 분노의 여부와 대상의 성, 그리고 분노의 여부와 대상의 성 또래의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가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외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2원 상호 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아동들이 남아를 공격했을 경우와 여아를 공격했을 경우 모두 분노성 공격보다는 비분노성 공격의 경우에 대해 또래들이 더 비난할 거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분노성 공격은 여아보다 남아 또래들이 더 승인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으며, 그와는 반대로 비분노성 공격은 남아보다 여아 또래들이 더 승인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였다. 3원상호 작용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성을 공격했을 경우는 남·여아동 모두 비분노상황보다는 분노상황에서의 공격행동에 대해 또래들이 비난의 결과를 더 많이 예상하였으며, 이성을 공격했을 때는 그와 반대로 예상하였다. 한편 분노상황에서 여아를 공격했을 경우는 여성 또래 집단이 더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남아를 공격했을 경우는 또래집단의 성에 따른 불승인의 결과예상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비분노 상황에서 여아를 공격했을 경우는 동성 또래집단이 더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으며, 남아를 공격했을 경우는 남아 또래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공격성 결과예상이 아동의 성과 같은 개인적인 변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분노의 여부와 대상의 성과 같은 상황적 요인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논의 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성에 따른 공격성에 대한 결과예상에서 남아와 여아는 부정적 자기평가에서 서로 다르게 예상하였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공격적 행동에 뒤따르는 죄의식을 더 크게 예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Perry와 그 동료들(198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성이 자아 존중감을 높여준다는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며(Slaby & Guerra, 1988), 공격에 대해 죄의식을 덜 가지기(Eagly, & Steffen, 1989)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분노의 여부에 따른 공격성 결과예상의 차이는 두가지 결과 즉 실제적 보상과 부모의 불승인에서 나타났다. 아동들은 분노성 공격에 대해 실제적 보상을 더 많이 예상하였다. 공격행동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아동의 신념을 강화시키고 부모가 공격행동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감소시킨다(Perry et al., 1989).

셋째, 대상의 성에 따라 실제적 보상, 부정적 자기평가, 희생자의 고통, 또래의 불승인의 결과 예상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공격적이며 아동들이 실제적인 보상을 더 많이 예상한다는 결과는 Perry와 그 동료들(1989)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연구가 충분치 않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성차별을 의식적을 물리치려는 사회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아 이를 수용해 가는 아동의 성역할과 사회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아 이를 수용해 가는 아동의 성역할과 성고정화의 변화를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여아를 공격하는 것이 남아를 공격하는 것보다 아동들이 죄의식과 희생자의 고통을 더

많이 예상하는 것은 여아가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아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타부가 남·여 아동 모두에게 내재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대상의 성에 따른 또래불승인의 결과예상에서 공격의 대상이 남아인 경우보다 여아인 경우에 또래가 더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Perry와 그 동료들(1989)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아동들이 동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더 또래집단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아마도 이성에 대한 구성원보다 동성의 구성원에 대해 좀더 방어적이고 지지적이라는 아동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아동들이 예상하는 공격성 결과들은 개인적인 변인인 아동의 성뿐만 아니라 상황적 변인인 분노의 여부와 대상의 성에 따라 변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얻어진 결과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에 따른 공격행동의 결과예상은 여아보다 남아가 부정적 자기 평가의 결과예상을 적게 예상하였다. 남아는 이성을 공격했을 때 자기비난과 죄의식을 더 많이 예상했으며, 이와 반대로 여아는 동성을 공격했을 때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실제적 보상, 희생자의 고통, 부모의 불승인, 또래의 불승인 결과예상에서는 아동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분노의 여부에 따른 공격행동의 결과예상은 분노하지 않은 상황보다 분노한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격대상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아동들은 분노성 공격보다 비분노성 공격을 부모가 더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였다. 부정적 자기평가, 희생자의 고통, 또래불승인의 결과예상에서는 분노의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대상의 성에 따른 공격행동의 결과예상은 여아보다 남아를 공격했을 때 자신이 얻고자 하는 실제적인 보상에 대해 자신감을 더 많이 가졌다. 그러나 여아보다 남아를 공격했을 경우 부정적 자기평가, 희생자의 고통, 또래의 불승인의 결과예상은 더 적게 하였다. 부모의 불승인의 결과예상에서는 대상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참 고 문 헌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79). Psychological mechanisms of aggression. In M. von Cranach, K. Foppa, W. Lepenies, & D. Ploog (Eds.), Human ethology: Claims and limits of a new discipline (pp. 316-37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rett, D. E. (1979). A naturalistic study of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aggression.

- Merrill-Palmer Quarterly, 25, 193-203.
- Berkowitz, L. (1962). Aggression: A social psychology analysis. New York: McGraw-Hill.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162-170.
- Fron, L. D. (1987).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social psycholog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00, 309-330.
-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 (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 634-660.
- Hartup, W. W. (1974). Aggression in childhood: Development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9, 336-341.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Nasby, W., Hayden, B., & DePaulo, B. M. (1980). Attributional bias among aggressive boys to interpret unambiguous social stimuli as display of hosti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48, 1301-1313.
- Patterson, C. J. & Mischel, W. (1976). Effects of temptation-inhibiting and task-facilitating plans on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209-217.
- Perry, D. G., Perry, L. & Rasmussen, P. (1986). Cognitive Social learning mediators of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7, 700-711.
- Perry, D. G., Perry, L. C. & Weiss, R. J. (1989). Sex differences in the consequences that children anticipate fo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2,000-000.
- Slaby, R. G. & Guerra, N. G. (1988).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1.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80-588.